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
면적	438,317 km ² (자료원 : CIA factbook, 2018 기준)
수도	바그다드(Baghdad)
인구	40,194,216 명 (자료원 : CIA factbook, 2018 기준)
민족(인종)	아랍계 75~80%, 쿠르드계 15~20%, 기타 5%(야지디, 아시리아, 페르시아인 등)
언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디스탄 지역에 한해 사용)
종교	이슬람교(97%: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0%, 쿠르드계 수니파 15%), 기독교 등 3%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조한 사막성 기후, 연간 강수량 170mm, 7~8월 최고기온 50도 이상, 1월 4~16도○ 대부분의 강우는 우기인 12~4월 사이에 내리며, 동 기간 중 평균 강우량은 100~170mm임.○ 북부 산악 지역은 겨울에 추운 날씨로 눈도 내림.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국가수반): Barham Salih(취임일 2018년 11월)○ 총리(정부수반): Adil Abdul-Mahdi(취임일 2018년 11월)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89-07-09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운수협정	1985-05-01	양국 간 항공기 운항 협력	
무역경제협정	1983-03-01	양국 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문화협정	1985-09-01	양국 간 문화예술교류 협력	

<자료원 : 외교부>

한국교민 수

1,390 명 (자료원 : 외교부('18.12.30))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19년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통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이종과 세방지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1983년 체결한 한-이 무역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에서 양국 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84년 1차 한-이라크 공동위가 바그다드에서 개최됐고, 1985년 2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3차 공동위는 1987년 바그다드에서 개최됐고, 제4차 공동위는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4차 공동위 이후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장기간 공동위 개최는 중단됐다가 2006년 이라크 측에서 재개를 요청했고, 우리 측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석대표직을 맡기로 함으로써 한-이라크 공동위가 다시 개최되는 계기가 됐다. 2007년 2월 제 5차 한-이라크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우리 측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 이라크 측에서는 무역부 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다시 약 3년 기간이 지난 2010년 12월에 서울에서 제 6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우리 측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 이라크 측에서는 건설 주택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어서 2011년 4월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방한으로 한국과 이라크 상호 간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7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가 2012년 3월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7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에서는 건설, 경제, 에너지 자원, 보건 환경 과학기술, 국제노동 통계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의제

를 대상으로 양측이 협의했으며, 합의서를 공동 채택했다.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이라크 측이 플랜트, 주택,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이에 이라크 정부는 프로젝트 정보 제공, 안전 보장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이라크 전후 재건복구사업 및 사회기반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바 양국에서 공동위원회가 교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

2007년 8월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 납치사건의 여파로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 연장돼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2018년 11월 바그다드에서 K-Pop 커버댄스를 포함한 한국문화페스티벌이 이라크 자체적으로 개최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라크인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pop을 전문으로 하는 파워유튜버의 이라크 팔로워가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치안이 안정화 될 경우 문화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0.74	2.54	13.06	-2.06	-
명목GDP (십억\$)	234.65	177.72	170.68	192.36	230.91
1인당 GDP (PPP, \$)	15,254.51	15,411.01	17,172.84	16,709.63	16,926.68
정부부채 (% of GDP)	32.86	56.88	66.03	59.73	51.77
물가상승률 (%)	2.24	1.39	0.53	0.1	2
실업률 (%)	-	-	-	-	-
수출액 (백만\$)	-	-	-	-	-
수입액 (백만\$)	-	-	-	-	-
무역수지 (백만\$)	-	-	-	-	-
외환 보유고 (백만\$)	62,945.35	51,070.97	42,125.26	45,715.27	60,745.55
이자율 (%)	6	6	4	4	-
환율 (자국통화)	1,166	1,167.33	1,182	1,184	1,182.75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2018년 BP(British Petroleum)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이라크 원유 매장량은 1,448억 배럴로 중동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원유 매장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수출의 99%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 의존 경제체제로 국제유가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작년까지 저유가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컸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증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되어 각종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유가상승에 힘입어 2018년 상반기 정부재정수입은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라크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및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급락으로 원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우려로 유가 지속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2018년 경제성장률은 4%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이라크 남부 바스라 원유 수출 물량은 하루 360만 배럴을 기록했는데 2019년 원유 수출량은 하루 400만 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유가호황에도 불구하고 IS 피해가

없던 2014년과 대비해서 원유 수출액은 아직까지 작은 상황이다.

경제 전망

2017년 12월 對IS 내전 승리 후, 2018년 5월 치뤄진 선거 이후 5개월간 교착상태를 거쳐 11월 정부가 구성되어 내전 피해지역 재건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KRG와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모술, 키르쿠크 등 IS 테러 피해지역 복구에 재건기금 등을 투입할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러시아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 우려가 잔존해 메릴린치는 2019년 2사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90~10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는 2018년 6월 OPEC과 합의한 생산량 달성을 위해 원유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생산 시설 정비 및 저장 탱크 확충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예산안 중 비오일 분야 수입예산은 14.5조 디나르(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라크 재무부(MOI) 비오일 분야 수입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세수 확대를 위해 소비세(Sales tax) 부과 강화하고 있는데 소비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이나 매출액 파악 및 부과대상 파악이 어려워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 부과해 수입관세로 변질된 상황이다. 더불어 자국산업 보호 명목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세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69개 품목에 대해 10~200% 보호관세를 부과해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아랍에미리트	128,676,230
2	시리아	33,601,642
3	터키	17,742,636
4	요르단	13,592,077
5	레바논	4,272,470
6	이집트	2,663,902
7	모로코	1,419,670
8	리비아	229,750
9	알제리	180,250
10	이란	171,67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49,211,300,000
2	아랍에미리트	90,365,423
3	싱가포르	86,190,954
4	시리아	6,845,658
5	레바논	2,958,620
6	이탈리아	2,555,973
7	이집트	1,261,320
8	요르단	812,990
9	이란	160,380

10	모로코	119,72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43,683,759,592
2	싱가포르	79,290,788
3	아랍에미리트	5,237,182
4	이탈리아	3,521,367
5	레바논	1,414,380
6	이란	333,530
7	이집트	200,000
8	요르단	126,000
9	스웨덴	83,270
10	독일	30,00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506,358,149
2	아랍에미리트	5,535,408,575
3	대한민국	2,904,516,181
4	미국	2,431,056,363
5	일본	1,555,374,286
6	이탈리아	911,669,751
7	인도	803,906,757
8	프랑스	746,899,675
9	이란	600,428,266
10	인도네시아	532,308,10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84,129,800,000
2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173,500,000
3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06,449,142
4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43,000,000
5	340319	기타	23,091,441
6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11,599,803
7	410711	폴그레인, 언스프릿	6,835,066
8	080410	대추야자	6,308,900
9	050400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3,126,150
10	200980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924,620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9,058,200,000
2	271011	-	157,290,954
3	340319	기타	90,353,423
4	271019	기타	82,000,000
5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8,627,981
6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168,250
7	080410	대추야자	2,095,740
8	200980	-	975,800
9	17041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79,000
10	410711	폴그레인, 언스프릿	274,27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3,622,900,000
2	271011	-	84,342,220
3	271019	기타	60,859,592
4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2,400,197
5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1,583,750
6	410711	플그레인, 언스프릿	1,068,594
7	410310	-	138,786
8	17041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6,000
9	510510	카드한 양모	100,000
10	490199	기타	80,640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111	천연가스	4,041,075,242
2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3,870,189,467
3	73063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3,817,826,566
4	271121	천연가스	2,345,600,000
5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2,090,387,871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662,791,133
7	843143	소호 제8430.41호 또는 제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1,294,955,133
8	850490	부분품	1,108,331,107
9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891,650,422

10	3003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35,590,548
----	--------	---	-------------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1,798	6,687	-4,889
2015	1,428	6,266	-4,838
2016	1,440	5,036	-3,596
2017	1,462	6,371	-4,909
2018	1,576	7,848	-6,27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71	항공기	184	0	184
2	7411	승용차	132	0	132
3	7412	화물자동차	124	0	123
4	6152	철구조물	71	0	70
5	7420	자동차부품	76	0	76
6	9701	무기류	12	0	11
7	7512	밸브	17	0	17
8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17	0	16
9	7901	기타기계류	4	0	3
10	8421	제어용케이블	22	0	2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71	항공기	369	0	369
2	7411	승용차	203	0	203
3	7412	화물자동차	117	0	117
4	6152	철구조물	73	0	73
5	7420	자동차부품	54	0	54
6	9701	무기류	39	0	39
7	7512	밸브	39	0	39
8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29	0	29
9	7901	기타기계류	25	0	25
10	8421	제어용케이블	25	0	2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6,336	-6,336
2	1335	중유	0	34	-34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6	0	5
6	7111	원동기	6	0	6
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0	1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0	0	0
9	8155	분석시험기	2	0	1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1
3	7419	기타자동차	5	0	5
5	5161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6,794	-6,794
2	1335	중유	0	42	-42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5	0	5
6	7111	원동기	5	0	5

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0	1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0	0	0
9	8155	분석시험기	4	0	4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0
3	7419	기타자동차	9	0	9
5	5161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14개국	1997-02-17	1998-01-01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중 14개국(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이라크-요르단 자유무역협정	요르단	2009-09-04	2010-01-01	2017년 12월에는 양국은 요르단에서 생산한 340여 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합의한 바 있지만 이라크-요르단 국경에서 동 무관세 합의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자료원 : 주이라크 대사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이라크-EU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	EU	이라크는 EU와 2012년 5월 11일 'EU-이라크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EU-Iraq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부터(잠정) 발효됐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원산지 제품의 EU 진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EU산 물품에 대해서는 8%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협정은 특혜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WTO 규범에 준해 작성된 협약으로,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과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EU의 대이라크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자료원 : 주이라크 대사관>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이라크의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2010년 시행하기 시작한 이라크산 제품보호법(Iraqi Product Protection Law, 2010)에 근거를 두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세 제도이다. 4년 기간 동안 국내 생산품의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로 100%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세 제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수입규제가 관리되고 있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 전 검사 담당기관인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COSQC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이라크로 수입되는 수입품 통관 시 품질 적합성 확인을 Bureau Veritas(BV)와 TUV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키고 있다.

○ 수입금지 품목

- 이집트산 유가공품/양고기/염소고기/닭고기, 일본산 식품, 울롱중국티, 브라질 슬리밍커피, GMO 식품, 할랄 이외 다른 종교로고 부착 식품,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 국제기구 OIE에서 발표한 BSE 리스크 국가산 고기 제품, 중국산 우유 및 고기 포함 식품, 인도산 계란 및 계란가공품,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한 타히니(참깨소스),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한 우유, 분유(Abbott사), 특정 국가(한국 포함)산 조류고기/계란/가공품, Asbestos(석면) 함유 제조상품, 혼합시멘트, 이스라엘 제품, 풍습을 해치는 간행물 및 CD, 무기폭발물류, 대량살상무기, 핵물질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동안 수출했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됐다. 이와 같이 매년 통관 시 품질 및 규격검사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적 전 수입검사제도 및 각종 인증제도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통관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수입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에너지 라벨링

-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SO 및 EU의 에너지 라벨링 시험규격과 라벨링 표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2017년 4월) 및 냉장고(2017년 9월)
-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이라크 표준청(2017년 4월 1일)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로 4월 1일 이후 통관품목부터 적용

TBT

이라크 정부 당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 강화과정에서 통관 현장 준비 부족과 통관 당국의 미숙한 역량으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원활한 통관이 지장을 받기도 한다.

2018년 5월 이라크 통관 당국은 모든 수입 품목에 원산지증명서, 선적 전 검사서, 이라크 바이어의 수입허가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통관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현장 세관의 준비 부족과 이라크 수입업체들의 반발로 50만 IQD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후 서류 제출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임시 조치는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년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다.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모조품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와 석유난로 등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해 인증 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다만 통관 시 BV 및 TUV에 대행권을 주어서 선적전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시도하고 있어, 국제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선적 전 검사 제도

이라크 기획부 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표준, 규격, 품질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통관 시 규격 및 품질 검사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BV 및 TUV)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험소 역량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 해당 품목은 장난감, 전자·전기제품, 자동차/이륜차 및 부품, 건설 기자재, 가공식품, 화장품 및 미용품, 가전제품, 부엌기구 및 기구, 화학제품, 섬유, 난방기기 등이다. 구체적인 품목은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인 BV의 한국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관채널인 이라크 남부지역 바스라의 움카사르 항구에서 통관 시 소요되는 선적 전 검사 확인 비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초부터 이라크 통관 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해 품질확인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움카사르항구 통관 사무소의 준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18년 5월 23일 총리실 명의로 품질확인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르면 2018년 6월 31일까지 품질확인서가 없는 제품의 경우 50만 이라크 디나르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수입화물을 선 통관하고 사후에 이라크 내 소재 시험검사소에서 품질확인 인증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통관비용은 관세를 포함해 20피트 컨테이너는 2백만 이라크 디나르(약 1,700달러), 40피트는 3백만 이라크 디나르(약 2,600달러)를 품목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치는 유예기간을 지나 2018년까지도 지속되었다. 또한, 공식 비용에 더해 현장에서 추가적인 비공식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이라크는 2003년 연합국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당시 재건비 조달을 명목으로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하고는 5%의 일괄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관세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해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돼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L 반군사태가 발생해, 군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난 반면,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돼,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에 관세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라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다.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경우, 이라크 관세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5% 일괄관세 체제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물류경로를 남부 바스라

에서 쿠르디스탄으로 돌려버림에 따라 이라크 중앙정부의 관세율 부과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해,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2016년 11월 1일부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승용차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총리실 행정명령(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을 통해 추가로 관세를 높이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다 간소화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The Council of Ministers No 393 of 2017), 전 수입품목이 4개군으로 나뉘고 최소 0.5%에서 30%까지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로 증가했던 승용차 관세가 다시 15%로 인하된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와 관련 국가전략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국장(Director General)급이다. 관세율 정보는 재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구체적인 품목 관련 관세 문의는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성 인증 등을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움카사 항 세관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는 통관서류의 진위여부를 수출국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움카사항 통관사무소 준비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임시조치에 의해 50만 이라크 디나르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선통관 후 서류 미비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피트 컨테이너는 200만 디나르, 40피트 컨테이너는 300만 디나르에 통관을 시키고 있다. 동 임시조치는 6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기준 현재까지도 통관현장에서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2) 통관 유형별 절차

○ 약식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정식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 전 검사 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 이후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수입면허 제출이 의무화됐다.

○ 우편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지정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 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 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해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적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 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단, 현재 이라크에서는 공식적인 통관본드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품 품질 확인은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크 표준청(COSQC)에 의해 외주를 준 BV 및 TUV를 통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선적 전 검사대행사인 BV와 TUV는 이라크 표준품질청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라크 내각 통관 사무소에서 품질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수출 시 한국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 Bureau Veritas
 - 대표 전화: +82-2-555-8922
 - 홈페이지: <http://www.bureauveritas.co.kr>
- TUV Rheinland
 - 대표 전화: +82-2-860-9860
 - 홈페이지: <http://www.tuv.com/ko/korea/home.jsp>
 - 이메일 문의: info@@kor.tuv.com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General Transport

주소	Al Masar Camp, Hamdan Al Bardia, Basrah, Iraq
전화번호	+964 (0) 770 492 6113
이메일	almasar@iraqilogistic.com
홈페이지	http://www.iraqilogistic.com

◦ Sharaf Shipping Agency

주소	P.O. Box 576, Sharaf Shipping Agency, Dubai, UAE
전화번호	+971 4 352 0555
이메일	info@sharafshipping.com
홈페이지	http://www.sharafshipping.com

◦ Mateen Express &Logistics

주소	Karada,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 771 001 2301
이메일	info@mateenexpress.com
홈페이지	http://www.mateenexpress.com

<자료원 : Iraq Yellow Pages>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이라크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ISIS로 인해 지난 3년간 정치 및 사회 여건상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석유 등의 핵심자원 개발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고는 있다.

석유는 이라크 국부의 핵심자원으로 사회인프라 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 재정원이 돼 왔다. 이라크 정부는 전력 등 사회핵심 기반시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일머니를 활용해왔고 불안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플랜트업체들이 이라크에 진출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관련해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려한 석유법(Oil Law)이 의회에서 논의만 됐고 2018년 12월까지 아직 통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역시 완전하고 안정적인 법적 체제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 투자유치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의거 수상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돼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은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돼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지원 주 조직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로서 정부 직제체계 속에서는 총리 직속기관으로 배치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이 관할하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하며 각 지역 또는 주 정부에서는 별도의 지역과 주의 투자부서 대표자가 임명된다.

- 지역 투자청(Territorial Authority): 지역 정부의 투자 승인과 투자 기획 담당
- 주 투자청(Governorate Authority): 주정부 내 투자 관련 부서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제2차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국가투자위험도

OECD 평가 최저 등급을 지속하고 있다(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S&P, Moody's, Fitch는 아직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투

자지원체제 준비 중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정착돼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종파 분쟁,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인센티브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 못지 않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해당 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유

이라크 정부가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해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건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이라크에서 외자에 의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신투자법 또는 외자 유치제도 등을 도입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 시기 내 경제 개발 목표 달성이다. 자국의 해외 금융능력 부족과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해 추진 계획 달성률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조세감면

외국투자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합작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사전에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투자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 고용보조금

이라크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 보조금 지급 제도가 없다.

○ 국책 R&D 지원사업 선정 등

R&D 지원 정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 한국 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 내 석유·가스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 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이라크 내에 지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 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 외국 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투자 주류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모두 인센티브 적용사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제정 중인 석유법으로 규율을 만들어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

이즈 및 유통사업의 경우도 2017년 커머셜에이전시법을 개정해 이라크인이 100% 소유한 법인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이라크는 수출자유지역청법(Free Zone Authority Law)을 1998년에 제정해 조세법상 특혜를 부여한 자유무역지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과 자본 이득에 대한 모든 조세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역 내 비 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0% 면제하며 이라크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비 내수용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이스라엘 보이콧(Arab Boycott of Israel)'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Khor Al-Zubair Free Zone
 -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인근 40km에 위치
 - 1,000km² 규모로 Al-Zubair항의 항만시설 이용, 걸프만의 물류 중심지
- Ninev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 북쪽 20km에 위치
 - 400km² 규모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과 남부의 바스라항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Al-Qa'im Free Zone
 -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와 국경지역 도시로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400km 북서쪽에 위치
 - 70km² 규모
- Sulaymaniy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소재

바스라 인근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ISIS 사태 여파로 아직까지 운영은 중단된 상태이다.

산업단지

○ Bub Al-sham

규모	15제곱킬로미터
위치	바그다드 북동방향 25Km
임차료	s/m 당 500~1000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투자위원회(NIC) - 연락처: 0780 812 0980 - 이메일: info@investpromo.gov.iq - 홈페이지: http://investpromo.gov.iq/
비고	건축자재, Mechanical equipment, Feeding, adhesives, Plastics products 관련 품목 취재업체 입지로 적합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3,119.8	-10,176.4	-7,574.2	-6,255.9	-5,032.4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227.1	241.5	147.7	304.3	77.8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14	1	1,040	23	98,128
2015	4	2	378	12	23,546
2016	4	0	620	8	8,790
2017	2	0	10	5	6,150
2018	4	0	155	6	3,4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16	97,590
제조업	2	0	194	0	0
건설업	5	1	416	2	108
운수 및 창고업	5	0	430	5	4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2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8	23,368
제조업	1	0	0	0	0
건설업	1	1	300	2	100

도매 및 소매업	1	1	58	1	58
운수 및 창고업	1	0	20	1	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8	8,790
제조업	1	0	20	0	0
건설업	2	0	500	0	0
N/A	1	0	1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5	6,150
제조업	1	0	10	0	0
건설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6	3,450
건설업	4	0	155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S산전

진출년도	2019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전기전자, 건설
취급분야	변전소 프로젝트 참가
모기업명	LS산전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p>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 법인은 비즈니스 및 시장조사를 주 목적으로 현지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이 이라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최소자본금은 1,000,000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법인은 한국의 회사가 이라크 내 영업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등록하고 회사법 역시 이라크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법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활동, 회계보고, 소송 및 채무의 법적책임은 해외법인에 있다. 또한 법인세 15%를 납부해야 한다.

지사

지사의 현지 설립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 및 등록과 동일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아래 명시된 문서 항목은 통상적인 요구사항이고 사업 내용 및 주무 부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설립 신청을 위해 필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발급된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사 설립에 대한 모기업의 공증서
- 신청서는 모기업의 레터헤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 작성돼야 한다.
- 지사 설립 동의서
- 지사 설립에 관한 이라크 절차 준수 서약서
- 지사 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인원의 이라크 상주 서약서

최소자본금은 1,000,000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해외 지사는 한국의 회사가 이라크 내 영업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등록을 하지만, 회사법은 한국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연락업무, 정부 수집 등과 같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며 한국 본사에 종속된다.

최소자본금은 1,000,000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인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절차 :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회사법인 법률 21/1997(2004년 개정)에 따르면 회사법상 회사는 크게 3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 Mixed or private joint 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Sole owner company

주식회사는 법인격, 주주의 유한책임, 지분의 자유양도성,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 주주에 의한 소유 등을 특징으로 한다.

5인 이상의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된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최소 자본금이 1백만 디나르이며 이 경우 한 주의 가격은 1디나르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석유가스 분야를 제외하고 회사설립에 제한이 없다.

25명 이내 출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인사업자

Individual Enterprise로 1개의 주식을 소유한 자연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Al Hadeel Al Hasan LLC

전화번호	+964-780-779-9779
주소	Mansour area, Dis. 609, St.2, H.8,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hhp-law.com/our-offices/
이메일	baghdad@hhp-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법무법인

○ Nesoor Legal Consulting

전화번호	+964-770-355-4400
주소	Al-Ameen Building, Arasat Alhindiya St.,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nesoor.net/?lang=en
이메일	info@nesoor.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법무법인

○ Sulaiman &Co

전화번호	+964-790-136-9304
주소	Al Karrada 901 Street 23 House 10,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www.sulaimanaudit.com/
이메일	saad@sulaimanaudi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법인

○ Ernst &Young Iraq

전화번호	+964-1-543-0357
주소	Block 609, Street 3, Villa 23, Al-Ameerat Street, Al-Mansour,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gl/locations/iraq
이메일	Baghdad.iraq@iq.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법인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 청산 관련 법률 : 이라크 회사 규정 및 법률 159-179항

사업활동 종료 또는 중단으로 인한 투자법인의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각 주무 부처로의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외자 법인 철수 및 청산 시에는 내국인의 경우보다 까다로운데,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관 부처 또는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철수나 청산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각돼 정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라크 공관부처 특성상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의뢰해 기각 사안에 대한 촉구 레터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 법인 철수 절차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철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변호인을 선임해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한 권한을 이임해야 하고 철수 등록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기관 중 최소 한 곳으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소득세부처
- 통관부처
- 사회보장부처
- 이라크 중앙은행(국책은행)
- 이라크 변호사 협회
- Al-Rasheed 은행(국책은행)
- Al-Rafidain 은행(국책은행)
- (지사의 경우에 한해) 계약이 체결된 담당 부처
- 이라크 보험사

서면 신청서 제출 일자로부터 현지법인 철수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철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부로부터 발송된 통지문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회신 후 최종 승인 결과가 통보되는 당일로부터 현지법인은 최종 철수한 것이 된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182이라크디나르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5
비고	<p>현지 피고용인의 임금 민감도는 높은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비전문분야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낮은 월급을 대체할 추가 성과급에 대한 희망도가 높은 편이다. 외국기업 사무직의 경우, 현지에서의 통역 또는 신변 안전 확보차원에서 고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급여 책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쿠르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화된 곳에서는 안전에 대한 특별 수당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지 회사에 취업한 대졸 평균 초임으로 추산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이다.</p> <p>최근에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늘어나면서 제한된 인력 범위 내에서 직원을 구해야 하는 외국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능력 및 구사 언어에 따라 월 700~2,000달러를, 비서직의 경우 800~2,000달러 상당을 지불해야 채용할 수 있다. 이라크 근로자는 다른 중동국가 근로자에 비해 직무에 대한 충성도와 열의는 높은 편이며 업무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라크는 노동법이 있지만 노동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해야 하고 임금은 이라크 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외국기업은 드물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석유회사 및 건설회사에 자국인 채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채용직원에게 대한 사회보장세납부 의무 준수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이라크 정부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조치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p>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이라크는 법률 37/2015에 따라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쿠르디스탄지방정부(KRG) 지역은 71/1987에 근거해 근로관계를 다루고 있는 쿠르디스탄 노동법이 해고에 좀 더 자유롭다.

이라크 중앙정부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나 쿠르디스탄지방정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자는 노동자와 반드시 합의하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이라크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이내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민간기업은 9:00~16:00까지 근무하며 일반 상점은 10:00~17:00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해 상가의 개점시간과 회사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한다.

휴가

유급 휴가는 최대 연간 30일이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휴가로 유급 1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해고

노동법에 따라 해고 처리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노동법 보다는 사내 내규에 따라 해고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금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지급 시 노동법 보다는 사내 내규가 우선한다. 이라크에는 별도의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납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이라크에는 The Pension and Social Security Law for Workers(고용인연금및사회보장법)에 의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제도를 다루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기구로 The Workers' Retirement and Social Pension Organization(사회보험기구)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경우 급여의 5%를 매월 공제하여 사회보장펀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에 의해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석유가스산업과 일반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산업 분야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12%를 부담하여야 하며 12% 중 1%는 건강보험(Health Assurance), 3%는 산재보험(Work Injuries Assurance), 8%는 국민연금(Pension Assurance)으로 나눠 적립된다.

석유가스산업 분야는 급여의 25%를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 중 3%는 건강보험, 3%는 산재보험, 15%는 국민연금, 4%는 서비스보험(Service Assurance)으로 나눠 적립된다. 서비스보험은 노동조합 운영비로 사용된다.

고용보험

별도 고용보험을 고용주나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

산재보험

일반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12%의 부담금 중 산재보험이 3%이며, 석유가스분야 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25%의 부담금 중 산재보험이 3%이다.

국민연금

일반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12%의 부담금 중 국민연금이 8%이며, 석유가스분야 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25%의 부담금 중 국민연금이 15%이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 일반기업 : 15%
- 석유·가스 개발 관련 기업 : 35%

개인소득세

소득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나며 3~15%이다.

- 50만 이라크 디나르 이하 : 3%
- 50만 초과~100만 이라크 디나르 : 5%
- 100만 초과~200만 이라크 디나르 : 10%
- 200만 이라크 디나르 초과 : 15%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규정은 없으며 부과세와 같이 간접세인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 선불 전화카드, 휴대폰 후불 영수증, 인터넷 사용료 : 20%
- 고급호텔 및 식당 : 10%
- 배급제 제품을 제외한 일반 소비 물품 : 5%
- 이발소 또는 미장원 이용료 : 5%
- 국제선 항공권 : 25,000이라크디나르(IQD)
- 국내선 항공권 : 10,000이라크디나르(IQD)
- 주류 : 200%
- 아이스크림, 유제품, 주스, 수입청량음료, 사탕류 : 25%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없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2003년 10월 새로운 이라크 디나르 화폐를 발행해 대미 환율을 US \$ 1 = 2,050 IQD로 정했으며, 이후 이라크 디나르화는 지속 절상돼 왔고, 2009년부터 이라크 중앙은행이 US \$ 1 = 1,170 IQD, 2014년은 US \$ 1 = 1,165 IQD라는 공식환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달러화에 자국통화 가치를 고정시킨 고정환율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공식환율은 US\$ 1 = 1,182 IQD이다.

이라크는 이중 환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은행에서 발표하고 정부은행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환율이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옥션을 통해 달러를 시중은행에 배정하여 시중은행들이 시장에서 달러를 팔 때 적용하는 시장환율이다. 두 환율이 다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는 공식환율이다. 2018년 7월 기준 공식환전소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US \$ 1 = 1,190 IQD를 상회하고 있어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보다 다소 높다. 시장환율은 2003년 8월 말 이라크 중앙은행이 업무를 재개한 이래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외화 경매를 통해 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2014년 ISIS 반군 사태 이후 이라크 경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적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라크 디나르화는 달러화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화 등 외환거래는 완전히 자유화돼 이라크 내 외환 소지 및 거래, 송금, 입금이 자유화돼 있다. 달러화 환전도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미 달러가 이라크 화폐 못지않게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장에서 달러로 지급 가능하다.

외환 규제

중앙은행 산하에 Foreign Exchange Control 부서가 존재하지만 외환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라크 전 정부 경제전문가는 이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18년 7월 인구 추정치는 40,194,216명인데 이중 노동인구인 25~54세 인구가 13,653,78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97%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원 : CIA Factbook>

소비 성향

이라크는 1인당 국민소득(GDP) 한국의 1990년에 해당하는 6,000달러(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1만 7,000달러)대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라크를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수준은 크게 낮은 편이나 석유자원 등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같은 국가 내 시장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

한 예로 이라크 거리를 보면 가령 20년이 넘은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한편, 유럽산 고급 SUV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이라크는 1970년대까지 중동의 산유국 중에서도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급제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월 1,000달러 미만의 소득자들도 최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한 유명 브랜드 재고품이나 모조품도 대거 유통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력이 미흡해 모조품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소비자들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나 품질 수준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품질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결과 저가 중국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 지수는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대체로 개당 100달러 미만의 제품은 가격을 더 따지나 100달러 이상인 제품은 품질이 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전 제품은 500달러를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제품은 5,000달러를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의 선호도가 바뀐다. 이상과 같이 이라크인의 일반적인 소비성향은 '유명 브랜드 저가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 제품은 대체로 '브랜드는 고급'이지만 제품은 선진국에서 한물간 구형 모델이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제3국에서 조립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한국은 비우호국으로 분류되어 상품 가치에 대해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라크 시장 내에서의 한국 상품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민간교역 부문에 있어서만은 일본, 중국, 구미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의 만족도가 높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기업의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한 인지도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며 가게에서는 Made in Korea에 대한 선택을 합리적 소비의 결정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의 선진화 이미지 정착이 성공하면서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타 생산품의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Mini Good, Ximi Vogue 등 중국 짝퉁 유통기업이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이용해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어 한국 제품 이미지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중동지역 공통으로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이라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정기적으로 상대방을 방문해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이라크는 우리 기업의 입국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안건으로 대면 미팅을 하여야 할 경우 두바이, 암만 등지에서 미팅을 진행하거나 한국으로 초청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 프로젝트 건으로 한국 외교부의 승인을 받고 이라크를 방문해 공무원을 면담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처나 국영기업의 의견(protocol) 파트를 접촉해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이라크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로 유명하다면, 중동 사람은 그 반대다. 중동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재촉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미팅 약속을 사전 통보 없이 지키지 않거나 30분~1시간씩 늦는 것은 다반사이고, '인살라'(신의 뜻대로)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거나 약속을 잡는데도 시일을 오래 끄는 경우도 있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 진행되는 비즈니스 약속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꾸준히 바이어를 접촉해 성약을 달성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살라'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알라의 뜻에 맡기겠다는 좋은 의미이나, 간혹 신의 가호로 원하는 대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변질되거나, 약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 후 헤어지면서 습관적으로 '인살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 실제 진행 여부는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부크라'는 '내일'이란 뜻이나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좋은 뜻이다. 그러나 상담할 때는 바로 내일 당장 주문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확인해 보면 '부크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말리쉬'는 원래는 괜찮다(No Problem) 혹은 이해해달라는 의미인데, 실제 주문 의사를 밝힌 후 몇 달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전화하면 바이어들이 곧잘 '말리쉬'라고 말한다. 이것은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으니 이해해달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와스따'는 중국의 '관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부족사회의 성향이 남아 있는 이라크는 공적인 사업에서도 친족 등 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원유 프로젝트가 물려있는 남부지역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 현재는 '와스따'가 친족 관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지역 출신 등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중동 바이어가 하는 말에 이렇듯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요하게 접근하며 한 번 거래를 한 경우에는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시아파 이슬람

이라크는 바트당 독재를 거치면서 세속주의적 통치를 겪어 인근 GCC 중동국가나 이란에 비해서 이슬람 색채가 약한 편이다. 때문에 주류를 즐기는 무슬림 남성,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이슬람 문화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그동안 억압받던 시아파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전면에서 나서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시아파 이슬람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

2) 복장

- (남성) 전반적으로 공공부문·민간부문에 있어서 서구식 양복, 비즈니스 캐주얼 등이 보편화돼 있으며,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슬람 전통복장(디쉬다쉬, 터번, 칸두라)을 걸친 비즈니스맨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일반 거리에서는 전통 아랍 복장을 한 중년 남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여성) 전반적으로 세속적인 경향이 강한 가운데, 수니파 여성들은 히잡(Hijab)으로 머리 혹은 머리·어깨만을 가리고 다니고, 시아파 여성들은 검은색 차도르(Chaddor)를 두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인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는 훨씬 더 제한적인 형태의 여성의류인 니캅과 부르카는 이라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전통복장을 하지 않고 현대적 의상을 입고 다니는 직장 여성들도 많다. 또한, 이라크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이 모두 무슬림인 것은 아니다.

3) 인사

약수는 아랍계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약수를 청하고 나서 길이나 집을 묻기도 한다. 이 때의 약수는 질문을 하기 위한 단순한 예의 절차 정도로 볼 수 있다. 포옹은 보통 가까운 집안 식구나 친척, 친구 간에 하는 인사로 먼저 머리를 오른쪽부터 시작해 왼쪽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는 인사법이다. 이 포옹을 하고서 상대의 어깨에 얼굴을 대거나 서로 뺨을 맞추는 인사를 계속하기도 한다. 뺨을 맞추는 인사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간에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다. 이런 인사는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사이에 하는데, 서로 오른쪽 뺨을 맞추거나 상대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대며 약한 소리가 들리게 하고, 다음엔 왼쪽을 맞춘다. 이때 반가움의 표현으로 양쪽 볼에 2번 이상 뺨을 맞추며 인사를 하기도 한다.

또 장례식 같은 위로의 인사를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을 당한 가족과 뺨을 맞추어 인사할 수 있다. 오른손을 들어 인사하는 법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바닥을 상대방이 보도록 앞으로 하고, 보통 머리 높이까지 들어서 인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때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입으로 인사말을 건넬 수도 있다. 이런 인사는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손을 좌우로 흔들 수도 있다.

4) 약속

이라크 바이어들은 약속시간 관념이 다소 불분명하다. 약속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거나 화를 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라크 전쟁 후 미군에 의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거나 전후 중고차 대량 반입으로 교통 정체가 많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식사

이라크인도 다른 이슬람 국가와 같이 손님 접대를 즐기며, 첫 대면인데도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바이어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가정 하에 바이어의 호의를 가급적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바이어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답례 형식의 초대를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초대를 받거나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해 음료(차)가 제공되면 적어도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6) 문화적 금기사항

상대방에게 신발의 바닥이 보이도록 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약수를 권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계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와 쿠르드 국기를 사용하는 등 준독립국으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쿠르드계 바이어와 상담 시 어설픈 아랍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화건설

한화건설의 누적 수주액만 101억 달러에 달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바그다드 동남쪽 10km 지점에 여의도 6배 면적의 지역에 60만 명을 수용하는 주택 10만 호 및 모든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2018년 1월 기준 공정률은 32%인데 비스마야 신도시와 바그다드 중심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 추가공사 수주가 전망되고 있다. 기획·설계·시공의 일괄 수행을 통해 PC 플랜트 등 17개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미리 완공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건설공사 추진하고 있다. IS로 인한 치안 위기상황에서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 LG전자

2017년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자치정부 수도 아르빌에 LG전자가 플래그십 상설매장을 오픈하는 등 현지 휴대폰, 에어컨 및 TV 가전 부문에서 고급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타 생활가전이나 생필품 분야에서는 2014년 이후 이라크의 가격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산·이란산 저가 품목의 입지가 넓어졌고, 바이어들 역시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지는 추세다.

이라크 부유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할 것인가가 향후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과 같이 가격경쟁이 덜하고 품질과 브랜드의 비중이 높은 품목도 이라크에서 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국민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도나 인지도 자체가 매우 높고 위성TV를 통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이 늘면서 한류가 서서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가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한국산 품질과 브랜드를 앞세워 이라크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외국인이 이라크에 입국해 장기간 활동 후 출국을 위해서는 입국용 사증,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 사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선입국 후 사증을 발급 받는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외교부의 내부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증 발급 신청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건 등을 미리 꼼꼼히 챙겨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입국용 사증은 프로젝트 현장 직원으로 오는 경우 통상 3개월 이상의 복수 체류용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출국을 위해서는 출국용 사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보건당국의 채혈 및 피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 출국용 사증이 발급되기 전에 출국을 시도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지급한 후에 출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이라크 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기업 한국인력들은 통상 1년 기한의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는다. 노동허가는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단기 출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은 이라크 내 초청기관(통상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체류연장 신청 공문을 첨부하여 내무부 및 여권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비자 만료일 이전에 체류가 연장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류기간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국 후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이라크 여행을 할 수 없도록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 이라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입국을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의 허가(제한적 여권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며, 우리 외교부는 제한적 여권 사용허가 신청과정에서 현지경호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입국할 때부터 현지 경호업체와 신변 경호 계약을 통한 안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뒤 주한 이라크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2~4주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휴대품은 면세이다. 전시회 물품의 경우 사전신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하물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클 경우 짐 검사를 통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이라크대사관

전화번호	+964-770-725-2006
주소	Villa W5, Dijla Diplomatic Compound Green Zone,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q-ko/index.do
비고	근무시간 : 일-목, 09:00-16:00 (비자 접수 10:00-12:00)

○ KOICA

전화번호	+964-781-803-5323
주소	P.O. BOX 2615 Al Jadriya Baghdad Iraq
비고	KOTRA 무역관과 동일 건물에 위치

○ 주이라크대사관 아르빌 분관(아르빌)

전화번호	+964-750-790-1678
주소	Rotana Hotel, Gulan Street, Erbil, Iraq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q-ko/index.do

<자료원 : 주이라크대사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전화번호	+964-771-100-5110
주소	Yafa street, Baghdad, Iraq 10011
홈페이지	https://mop.gov.iq/en/

○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전화번호	+964-780-812-0980
주소	Arbataash Tamuz St,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investpromo.gov.iq/

○ IraiNews

전화번호	+973-1619-8858
주소	Al Moayyed Tower, Suite 1900, Seef District 428, PO Box 20450, Manama, Bahrain
홈페이지	https://www.iraqinews.com/

○ Al Bawaba Middle East

전화번호	+962-6-565-8322
주소	The Plenary, 4th Floor, 74 Abdel Hamid Sharaf Street,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www.albawaba.com/iraq

○ 석유부(Ministry of Oil)

전화번호	+964-782-557-0640
주소	Bur Said Street,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oil.gov.iq/

○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전화번호	+964-782-374-9376
주소	14th July Street, Arbataash Tamus,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moelc.gov.iq/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200IDQ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12
2	식품	비빔밥	1인분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4	식품	신라면	1봉지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4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4
8	의료	항생제	12정	1.7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4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5.8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5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3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4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4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이라크의 공식 통화는 이라크 디나르(Dinar)이며 약어로는 통상 ID 또는 IQD(Iraqi Dinar)로 칭한다. 이라크는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Money Exchange라고 쓰여있는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은행 환율과 차이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은 달러 대비 1,182이라크 디나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환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들어 시장환율은 1달러당 1,195이라크 디나르를 상회하고 있어 전년도 1,250 IQD를 상회하던 때와 비교 소폭 평가절상이 됐다.

환전방법

현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현지화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가격도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 달러화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액의 현지화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달러화를 결제할 경우 통상 2,000디나르를 손해보기 때문에 시중에서 물건 구입 시에는 가급적 디나르화로 환전해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전소 또는 호텔 간 환율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환전은 호텔에서 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 이용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일부 특급호텔 등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급호텔에서도 시스템상의 장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우천 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매일 여러 건의 테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며 테러 다발지역인 바그다드 내 사드르시티, 카라다 지역, 안바르주 라마디-팔루자를 간 고속도로를 비롯 과거 ISIS 장악지역 등지에 대한 방문은 절대 삼가야 한다.

버스

이라크 내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한 일반 택시 및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라크 현지인들도 테러 안전문제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환경에서 외모의 차이로 인한 확연한 신분 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각국 대사관 및 주요 정부부처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역인 Green Zone과 같은 안전지대를 제외하고는 장단거리 구분없이 방탄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여행금지국인 이라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여행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용허가 판단요인은 치안 확보이기 때문에 출장을 와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택시

이라크 내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한 일반 택시 및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라크 현지인들도 테러 안전문제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환경에서 외모의 차이로 인한 확연한 신분 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각국 대사관 및 주요 정부부처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역인 Green Zone과 같은 안전지대를 제외하고는 장단거리 구분 없이 방탄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여행금지국인 이라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여행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용허가 판단요인

은 치안확보이기 때문에 출장을 와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다. 통신

핸드폰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Zain, Asia Cell, Korek Telecom 등 3개사가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운영 중이다. 하단의 통신업체들의 경우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열악하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면 전화 송수신이 어려운 등 서비스 수준은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외 로밍, SMS, 음성사서함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는 3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라크에 장기출장을 올 경우 상기 3개사의 유심카드 및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휴대폰 선불카드는 세금포함 60,000디라르(50 달러), 120,000디나르(100 달러)이며 각각 50,000디나르, 100,000디나르 내에서 통화 및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Zain

쿠웨이트의 Zain Group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라크 내 최대 모바일 사업자이다. MTC Atheer란 브랜드로 2003년 10월 사업권을 획득한 후 2004년 8월부터 이라크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의 15년 장기 사업자 선정에 위한 재입찰 시 선정됐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포기한 이집트 Orascom의 Iraqna를 인수함으로써 이라크 내 최대업체가 됐다.

○ Asia Cell

공식명칭은 Asiacelel Telecommunications Co., Ltd.로 Zain에 이어 두 번째 모바일 사업자인 Asia Cell은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이다. 지난 1999년 쿠르드 술레이마니아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시작한 Asia Cell은 2003년 10월 MTC Atheer 및 Iraqna와 함께 이라크 모바일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쿠웨이트의 Wataniya Telecom사 주도 콘소시엄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Wataniya Telecom사는 카타르의 Q-Tel이 운영함). 비록 사업 시작은 이라크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2005년 1월부터 통신망 확충 투자를 시작해 2007년 8월에 전국적인 사업자로 재선정되었다.

○ Korek Telecom

세 번째 모바일 사업자로 2000년 11월부터 쿠르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넷(와이파이)

후세인 정권 하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으며 극히 일부 이라크인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2002년에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만 5,000명 수준으로 아주 낮았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 독자적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Uruklink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몇몇 외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환경이 조성돼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에 지나지 않으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공식통계자료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5년부터 통신사들이 3G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선인터넷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유선보다는 무선 인터넷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위성에 의

한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Uruklink, ALJAZEERA TELECOM, Earthlink, ZAIN, Skynet 등이다.

인터넷 이용료는 IP 1개당 월 100~3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비싸지만 최근 다양한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보다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회사별 인터넷 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인터넷 회사의 자료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속도는 대체로 50~100kb 수준으로 최근에는 1메가바이트 이상의 인터넷도 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안정적이고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 저하 및 인터넷 단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또는 전국 학생시험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화상통화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나 음성통화는 오히려 통신사업자 서비스보다 나은 경우도 많다.

라. 관광명소

○ 이라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Iraq)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Nasir Street, Baghdad, Iraq
운영시간	08:00~14:30
휴무일	매주 금요일 휴관
명소소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방대한 사료를 보유한 바그다드 최대 박물관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천궁(Sky Palace)

도시명	바그다드
전화번호	+964 7 505 223 333
주소	Karrada Street, Al-Jadria, Baghdad, Iraq
가격	USD 50~100
영업시간	16:00~23:0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치안이 좋은 바그다드 Babylon Warwick hotel 14~15층에 위치한 식당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바빌론 호텔(Babylon Warwick Hote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Karrada Street, Al-Jadria,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 750 522 3333
홈페이지	https://warwickhotels.com/
숙박료	USD 260~
소개	바그다드 그린존 외부에 위치한 호텔 중 가장 안전한 5성급 호텔

○ 라시드 호텔(Royal Tulip Al Raseed Hote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Tower, Baghdad, Iraq 08070
전화번호	+964 770 013 3370
숙박료	USD 280~
소개	바그다드 그린존 내에 위치한 유일한 호텔(5성)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도조(Dojo's)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14th of July St, Baghdad, Iraq 10011
전화번호	+964 771 009 8000
숙박료	USD 200
소개	바그다드 그린존 내에 위치한 1일 3식을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주요 도시는 대부분 위험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IS 잔존세력의 위협이 덜한 바스라 등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의 경제침체, 중앙정부 치안부재 등으로 인해 납치 등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회사를 대동하지 않은 불필요한 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역시 테러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또한 ISIS 반군이 점령하였던 이라크 북서부 안바르주, 키르쿱주, 살라후딘주 및 니네베주는 여전히 ISIS 잔존세력이 여전히 출몰하고 있으므로 출장 시 현지의 초청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이라크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여행 금지국이며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일거에 좋아질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바그다드 시내는 물론 위험한 시 외곽 지역으로의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이라크 출장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를 통해 해외 사건·사고 접수, 신속 해외송금, 이라크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상황별 대처 방안을 숙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먼저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안이 위급해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해야 한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영사콜센터나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으로 연락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 연락해 지원받아야 한다. 분실한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 이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행증명서 발급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 여권 사진 2장
-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의 티켓 등

3) 응급전화번호(화재/범죄/의료)

- 화재: 소방서(115)
- 범죄: 경찰서(104)
- 의료: 응급구조대(122), 병원응급실(+077-5842-6845)

4)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고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인질/납치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해야 하며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선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 테러/폭발

먼저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린 신체 보호하며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해야 한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동 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화학테러의 경우 눈물과 경련,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땐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탈출해야 한다.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못물,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근에 의심물질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방사능 테러는 폭발을 감지해도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는지 감지하기 어렵다. 핵 폭발지역에 있을 경우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을 경우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두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 매물을 확인한 다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주택 임차료
 - 그린존 내 소형주택은 1만 달러/월, 2층 이상 대형주택은 2.5만 달러/월
 - 치안이 좋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Jadreya Mansoor 지역의 아파트는 2,500달러/월, 소형주택은 3,000달러/월, 대형주택은 5,000~1만 달러/월
- 유의사항
 - 바그다드 시내 역시도 아직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경호경비업체와 주택임차와 함께 경비계약도 같이 체결해야 한다.

전화

- 유선전화

2006년에 전화 회선 수가 인구 100명당 평균 4회선으로 2001년 평균인 2.9회선에서 증가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로 유선전화는 더 이상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도 오히려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등으로 인해 지금은 거의 유선 전화가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팩스 서비스도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도후,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지역에도 유선전화는 개통돼 있으며 연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키르쿠크 지역도 지방 유선전화는 개통돼 바그다드까지 연결돼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82-지역 번호-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되며 국제전화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라크로 전화할 경우 001(2)-964-1(유선), 001(2)-964-79(휴대폰, 이라크의 경우)-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 휴대전화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Zain, Asia Cell, Korek Telecom 등 3개사가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운영 중이다. 통신업체들의 경우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열악하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면 전화 송수신이 어려운 등 서비스 수준은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2015년부터는 3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압/플러그

이라크 전력은 모든 가구의 98%가 공공전력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가구의 78%는 파이프를 물 공급을 받고 있다. 또한, 모든 가구의 37%는 하수도 처리 시설에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78%와 파이프를 연결돼 물을 공급받는 가구의 66%는 심각한 공급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한 예로 공공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10시간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같은 전력 부족은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여름철에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다수의 가구에서는 소형발전기를 통해 자가발전을 하거나 지역 민간업체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실정이다. 하계의 옥외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바그다드 진출업체들의 경우

호텔 등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가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다. 플러그나 소켓은 C, D, G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

식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오염이 심하고 정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라크 남부지역에서는 염분이 많은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출장 시에는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셔야 한다. 생수 가격은 500mL 기준 0.5달러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한국과 운전면허 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운전면허증을 이라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라크 운전면허를 갖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용과 정부 관청용 구입방법

- 정부 관청용 차량 구입 : 국영회사인 GAMCO(General Automobiles and Machinery Co)에서만 구입이 가능

(www.gamcoiraq.gov.iq)

- 개인용 차량 구입 : Albayaa, Alnahdha, Alwazeriya, Aladhamiya, Alhabibiya 등지에 소재한 차량 전시장을 활용한 차량 구입

- 차량번호판 등록

- 교통부(MOT) 산하에 General Directorate of Traffic에서 차량 등록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쿠르디스탄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차량가격

중고차량 가격은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차량인 Optima는 3년 이내 중고차량이 1만5천 달러~2만 달러이며, 신차의 경우 2.5~3.5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탄차를 타는데 Toyota Land cruiser 모델은 5년 이내 중고차는 80,000~100,000달러, 신차는 15만 달러 선에서 거래된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과 운전면허 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운전면허증을 이라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라크 운전면허를 갖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주재원이 해외송금이 유리한 은행은 TBI(Trade Bank of Iraq)와 Al Rafidain 은행이 있다. 1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입금된 예금,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급여는 추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달러화 계좌를 개설할 경우, 센트 단위는 청구를 해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인출 시 센트 단위는 청구서에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계좌 개설방법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나 서류(여권,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거주지 주소, 사진 2매)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2주 후 계좌가 개설되며 별도로 통장을 지급해주지 않으니 은행잔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잔고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며 1회 발급 시 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없음.

- 현지학교

o Al Aqeeda(Catholic) School for girl

도시명	바그다드
커리큘럼	중고등학교 통합과정
비고	Abu Nuw'as Street, Baghdad, Iraq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마. 병원

o Ibn Sina Hospita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Iraq, Al Karkh 228, Hay Al Tashree, International Zone
전화번호	+964-775-842-6845
진료과목	내과, 외과, 기본검진
비고	정부 의료기관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Baghdad Mall

주소	Baghdad Mall, Al Harthiyah, Baghdad, Iraq 133983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aghdadmal/
비고	2017년 8월 오픈한 바그다드 최대의 쇼핑몰로 치안이 좋아 외국인 쇼핑객이 갈 수 있는 장소임.

o Al Mansour Mall

주소	Al Mansur St, Baghdad, Iraq 00964
비고	2013년 7월 오픈한 바그다드 쇼핑몰로 치안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음.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식품점

o Cozmostore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Mall, Al Harthiyah, Baghdad, Iraq 133983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품목
비고	2017년 8월 오픈한 바그다드 최대의 쇼핑몰내에 위치해 있어 치안이 좋아 외국인이 식료품을 구입하는 장소임.

o Carrefour

도시명	아르빌
주소	Erbil Royal Mall, Shores Bridge, Erbil, Iraq 44001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품목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19-01-01	New year's Day
국군의날	2019-01-06	
춘절	2019-03-21	Nawrooz Eid &Kurdistan Feast

노동절	2019-05-01	International Labor Day
이드 알피트르	2019-06-05	(6월 5~7일)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에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한 후 이슬람력의 열 번째 달에 해당하는 샤왈(Shawwal) 첫째 날 사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성대하게 먹고 마시는 축제
혁명기념일	2019-07-14	Anniversary of 1958 Revolution, changing the Ruling Regime from Kingdom to Republic
이드 알 아드하	2019-08-12	(8월 12~15일) 라마단 종료 후 열리는 이드 알 피트르(이슬람력 10월, 샤왈)와 더불어 무슬림들의 양대 축제로, 이드 알 피트르는 '작은 축제(小 바이람)', 이드 알 아드하는 '큰 축제(大 바이람)'로 불린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신의 뜻에 따라 아들인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목을 베려는 순간, 그 믿음을 보고 만족해 한 하느님이 아들 대신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전설에서 유래됨.
이슬람력 신년	2019-09-01	
이슬람력 1월 10일	2019-09-10	무함마드의 손자인 후사인 이븐 알리가 680년 이라크의 카르발라(Karbala) 전투에서 수니파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무함마드 사망 후 이맘 후사인을 유일한 이슬람의 지도자라고 믿고 있어 아슈라가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종교 행사
모하메드탄신일	2019-11-10	Prophet Mohammed's Birthday(Mawlid al-Nabi)
전승기념일	2019-12-10	2017년 제정된 IS 전쟁 승리 기념일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바그다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주소 : P.O. BOX 2615 Al Jadriya Baghdad Iraq (우편배송지 주소도 동일)
- 무역관 연락처 : +964-77-2224-4629

공항-무역관 이동

바그다드 공항을 포함한 이라크 내 모든 공항 주변의 치안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므로 테러, 납치, 종파 간 분쟁 등으로 인한 과격 단체의 폭동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경호업체를 활용, 공항에서부터 방탄 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렌트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무역관 방문 관련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야 하며 경호회사가 그린존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바그다드 소재 호텔에서 연락을 주시면 무역관장이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